



보도자료

대한민국에 대한 여행정보단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

주한 호주대사관은 대한민국 내 호주 국민의 대피 조치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.

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“한국에서 거주중이거나 여행하는 자국민에 대한 여행 정보단계 (http://smartraveller.gov.au/Countries/asia/north/Pages/south_korea.aspx) 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”고 재강조했다.

또한 제임스 최 대사는 “주한 호주대사관은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 끝.